



제17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7일 대한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광주역 광장에서 첫 유세 대결을 펼쳤다. 정동영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대한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사진 왼쪽)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한나라당 광주시선대위 관계자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鄭 평화 대통령” VS “李 경제 대통령”

신당-한나라 광주역 광장서 첫 유세 대결... 선대위 가동 지지 당부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7일 대한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광주역 광장에서 첫 번째 유세 대결을 펼쳤다.

대한통합민주당 손학규·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광주역 광장에서 정동영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거짓말과 부패로 가득한 이명박 후보가 만년 1위로 군림하고 있어 답답하고 당혹스럽다”며 “국민들의 이같은 반응에는 대한통합민주당에 대해 더 잘하면 좋겠다는 비판과 책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부패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며 “대통령 권력이 부패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불안해져 제2의 IMF사태가 올 것”이라고 ‘이 후보의 대통령 불가론’을 역설했다.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은 “5·18영령 앞에서 부패·냉전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다짐했다”면서 “광주시민이 일궈낸 민주·개혁·평화 정부를 반드시 이어나가겠다”며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에는 강기정·김태홍·유선호·김동철·지병문 의원과 선거운동원, 당원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광주시선대위도 오전 11시 이만희·한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안재홍 총괄본부장, 유준상 당 상임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유세를 갖고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원으로 나선 한영 최고위원과 유준상 당 상임고문은 “지난 10년은 희망이 실종된 절망의 세월이었다”며 “실현하는 경제 대통령 이명박 후보와 함께 희망시대, 국민공공시대를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BBK 사건과 관련 “또 다시 2002년식의 흑 부풀리기와 정치공작, 여론몰이식 진실공방

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날아가버린 취직의 꿈을 되찾아주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대통령을 선택해달라”며 이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전남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전석홍·이근범 공동선대위원장과 박재순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시장과 순천 동부상설시장, 부영아파트 등을 돌며 첫 유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날 새벽 여수에서 열린 세계엑스포 유치 축하 이벤트에 참석한 뒤 서울지역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29일 목포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호남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훑는 ‘호남 대장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시선대위도 강기수 상임위원장과 윤민호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흑석4거리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첫 유세를 갖고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빅3 첫날

여수서 밤샘... 도라산역서 “평화”

정동영 후보

대한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7일 새벽 여수에서 첫 일정을 소화한 뒤 경의선 남측 최북단인 도라산역에서 ‘평화·경제시대’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대전으로 이동해 ‘중원’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저녁에는 귀경해 서울 명동 유세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 후보는 26일 밤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낚시를 하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전을 퍼다가 파리로부터 여수엑스포 유치 낭보가 전



대 연단으로 올라 미니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정 후보는 “한국 사람의 기가 폭발하고 있고 이 기운을 믿고 세계 복판으로 나가자”며 “여수의 큰 기운을 받아 12월 대선도 꼭 승리해 여수 엑스포의 기쁨을 10배, 100배로 만들겠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도라산역에서 과거 개발 독재식의 경제개발 모델이 아니라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하며 한국경제의 틀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평화·경제시대’를 선언했다.

도라산역을 떠난 정 후보는 곧바로 대전으로 향했다. 부산(이해찬), 광주(손학규·김근태), 원주(정대철·정세균)에서 선대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대전역에 집결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이어 명동 롯데백화점 앞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유세활동을 벌이고 열차 내에서 기자회견회를 했다.

경부선 KTX로 이동하며 “경제”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7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경부선 라인을 KTX로 이동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보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역동성과 기동성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조만간 호남선축 릴레이 유세도 가질 계획이 있다.

노타이에 검은색 반코트를 입고 캐주얼화를 신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20분경 가회동 자택을 나선 뒤 승합차 편으로 종각역에 도착, 지하철



을 타고 서울역까지 두 정거장을 이동했다.

이 후보는 서울역 광장에서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선후보로서 첫 공식 연설을 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과 많은 난과 속에서 지켜준 서울시민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나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에 정권교체의 불꽃이 솟아오르게 만들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팬클럽인 ‘MB연대’ 회원들은 그에게 “대한민국 경제통장”을 선물했고, 이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정계천 복원을 추진할 때 가스통을 들고나와 “자폭하겠다”며 반대했던 정석연씨(청계천 상인연합회장)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 후보는 이어진 대전과 대구, 부산 유세에서도 “경제를 살릴 지도자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朴 유세 채비... ‘간소 모드’로

30일부터 지원 유세 시작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 준비는 ‘최대한 간소하게’를 모토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27일 “30일부터 지원유세를 시작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박 전 대표의 스타일과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이 후보와 동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유세를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최소화시켜서 간소하게 준비할 것이고, 후보가 다니는 것처럼 거창하게 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표 의중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박 전 대표를 위해 준비를 지시한 유세용 버스를 사용하는 대신 주로 승용차나 열차편 등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유세지원단도 꾸리지 않고 수행규모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유세지역과 관련해선 이 후보의 상대적 ‘취약 지역’인 대구·경북이나 충청권, 혹은 상징적 의미를 담은 호남권 방문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박 전 대표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세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박 전 대표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을 아꼈으나, 정권교체의 당위를 강조하고 좌파정권 종식을 호소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연남수

최인기 의원 NGO 선정 우수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사천)이 17대 국회 등원 이후 4년 연속 270개 NGO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최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 “행정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우수 의원 가운데서도 ‘모범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최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모범우수의원패’를 수상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울·수도권 공약 현충원서 “국가”

이회창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첫 날인 27일 서울 바닷가를 누볐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을 위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훑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새벽 0시 노랑진 수산물 시장을 찾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이 후보는 국립 현충원



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이 후보는 선거자 무소 옆 승레운 교차로에서 지지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하고 결의를 다졌다.

이 후보는 출정식에서 “거짓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사고에 빠진 후보로는 정권을 교체할 수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면서 “노무현 후보에 속아서 지난 5년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가. 한나라당 후보에 속아 다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출정식 직후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가를 누볐으며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한 뒤 이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잠실 롯데월드, 잠실역 지하상가, 동서울터미널 상가, 경동시장, 동대문시장·두산타워 등을 차례로 돌며 숨가쁜 첫날 선거일정을 소화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가자! 제주로 - 한파상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대한민국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중 '나리'로 제주도-한해 등 전국 사랑을 받았으며, 그러나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도 함께 높이는 데에 노력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 겨울 한라산 탐방 사은행사 】

제주 탐방 100주년 기념 행사로, 겨울 한라산 탐방을 통해 한라산의 아름다움과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겨울 한라산 탐방을 통해 한라산의 아름다움과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UNESCO 세계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